

제 4 회 부산연극제 참가작품

 극단 **예술극장** 제18회 정기공연

# 예술극장

작 : 박 원 돈  
기 획 : 정 기 영  
연 출 : 이 영 식

후 원 : 낙 동 강 보 존 회

## 자연, 그리고 인간



구 철 회  
• 낙동강보존회 회장

자연은 우리가 그곳에서 태어나, 살고, 되돌아가는 생명의 근원이요, 젖줄이요, 환원지이다.

그러므로 분별없는 자연의 파괴나 훼손은 바로 우리의 생존의 바탕을 고갈시키고 위협하는 일이다.

먹고 쓴 다음에 함부로 버리는 더러운 꾸정물도 똥물보다 더 더럽고 극약보다 더 무섭게 썩어가는 개천이나 강물의 물골은, 머지않아 그러한 모양으로 빈사의 지경에 이를지 모를 우리의 물골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기에 한층 비극적인 것이다.

비틀린 기형(奇型)의 물고기나 농약으로 떼죽음 당한 물오리들이 우리의 가슴에 던지는 처연한 그림자는, 바로 우리의 생존도 것처럼 알게 모르게 침윤 당하고 있다는 예감 때문인 것이다.

분명한 것은, 흐르는 물이 썩어갈 지경이라면 사람의 생존도 결코 팔장만 끼고 태평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하지는 못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물고기의 몸이 비틀리고 새들이 둥지 틀기를 꺼리는 자연환경이라면 사람도 그 속에서 절대로 오래 견디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

이 엄연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거역할 수 없는 엄숙한 자연의 섭리 앞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합리화도 용서받지 못한다.

자연이 죽으면 인간도 죽는다.

이 자명하고 평범하며 무서운 진리를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한다.

자연은 훼손하기는 쉬워도 한번 파괴하고나면 원형을 복구하기란 불가능하다.

아무리 발달한 첨단기술로든 한조각의 자연석은 만들 수가 없다.

인간은 다만 가공(Roi) 할 뿐이다.

그 확실한 과학기술의 한계, 인간능력의 한계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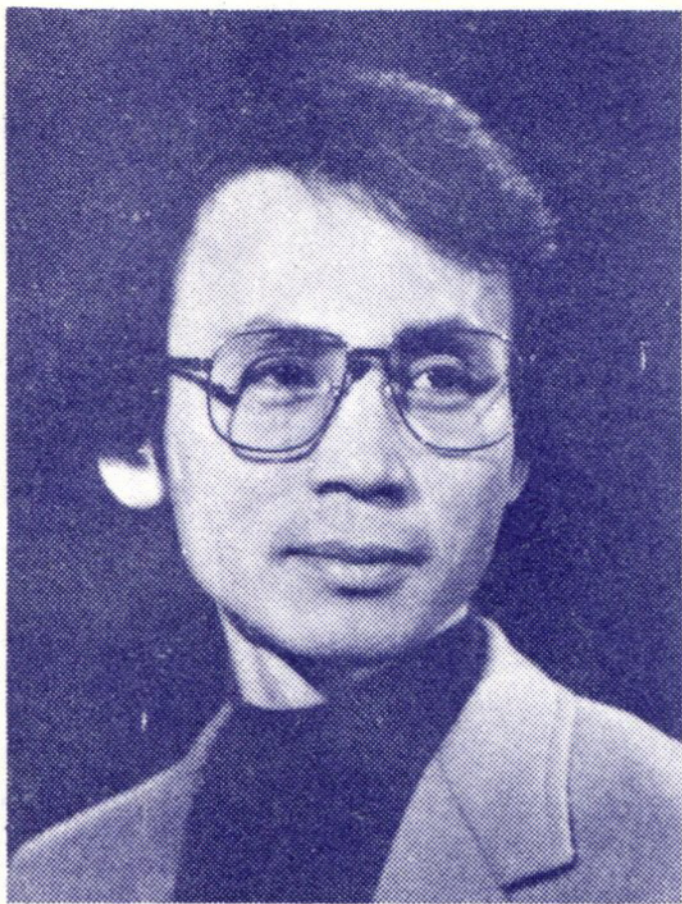
낙동강보존회가 내걸고 있는 참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

동양최대의 철새도래지가 350만 시민의 먹어야할 물보다 소중한 하구(河口)의 기름진 삼각주나 갈대밭이 부산의 웅장한 미래설계와 맞바꿀 만큼 더큰 비중이 있다고 주장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낙동강은 오랜 옛부터 우리네 삶의 소중한 품요한 삶의 젖줄, 생명의 샘이 되어온 영혼의 고향같은 물줄기로서, 그 모습대로 곱고 소중하게 지키고 가꾸고 보살피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그 줄기를 막는 거대한 독은 놓이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더 이상의 오염이나 생태계의 중대한 변화가 오지 않도록 사후 대책이라도 철저히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일 뿐이다.

부산예술극장의 <을숙도> 공연 소식을 듣고, 우리 모두 자연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되새기는 값진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연극팬들의 참관으로 성황과 성공을 이루기를 바란다.



극단대표 이 영 식

## 을 속 도 의 한

낙동강 천삼백리 길을 구비구비 흘러서 오다  
영영 육지를 벗어나 바다로 떠나가기전 어김없이 들러  
는 곳.

이름조차 모를 갖가지 새들이 철마다 끊이지 않고 찾  
아오는 이곳 을속도.

아름다운 이곳 철새 도래지가 얼마전 부터  
사람들에 의해 어지럽게 변해가고 있고 주위의 자연이  
물질문명의 뜻하지 않는 혜택으로 그 모습이 아픔에  
병들고 있다.

붉게 물든 노을빛 아래 허느적거리는 수많은 갈대숲...  
멀리 강변에는 수많은 철새들이 즐거이 노닐고 기러기  
떼지어 멋진 그림을 그리며 날으는 을속도.

이곳에 사는 주인공 「권달수」는 자연을 사랑하며 그  
속에서 살아가려 하지만 모두가 떠나는 과정속에서 그  
는 영원 속으로 사라져 간다.

몸은 흙이 되어도 그의 영혼은 을속도의 모든것 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 갈것이니라.

부모를 도외시하는 돈많은 자식들...

자연보호를 외치며 엽총이나 들고 다니는 고귀한 분들  
.....

모두가 「참말로 한심하게 한심해.」

이번 작품은 우리 부산의 이야기를 직접 우리들의 방  
언으로 만들어져 처음으로 무대에 올려진다는 점에 뿌  
듯함 느끼며, 한편 더욱 무거운 책임과 연극인으로서  
의 사명감을 절실히 느낀다.

앞으로 더욱 향토적 작품 창조에 힘을 써야겠다고 느  
끼며 끝까지 작업에 참여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하느  
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 을숙도에 울리는 징소리

저먼곳 강원도 천의봉의 1200하늘가에 조그만 샘터 너덜샘이 몇방울의 맑은 물을 뿜어 남해로 향한 그의 혈관 속에 흘러보내며 그물은 이땅 대한의 기름진곳을 찾아 시간과 바람속에 흘러가고 그 흐름은 황지의 순결을 비롯한 안동, 상주, 구미, 대구, 현풍, 박진, 낭지, 수산, 삼랑진, 물금을 거쳐 우리들 자랑의 땅 을숙도의 품에 안겨 맹을돌아 그곁에 살아가고 있는 부산인의 석별의 순길을 기다리면서 넓은곳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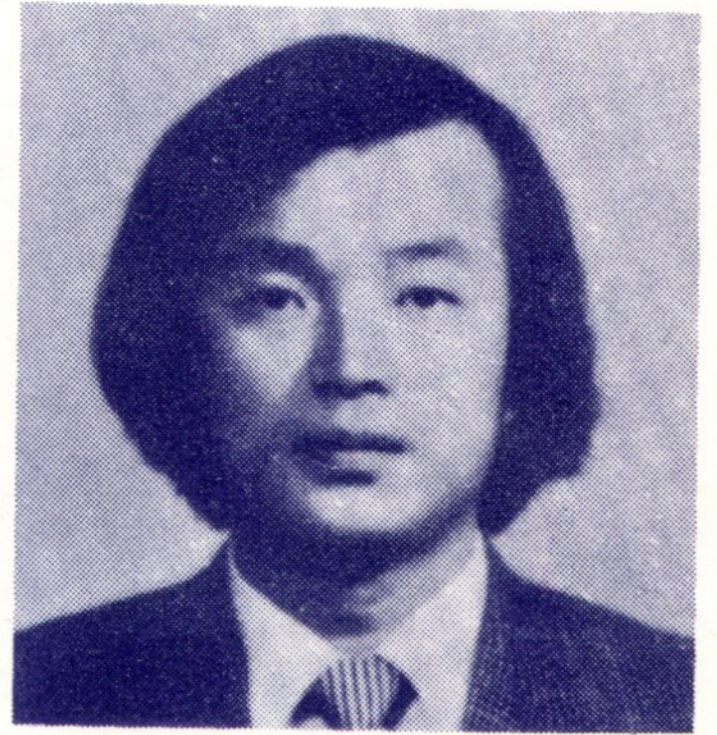
1300리 먼길을 달려와 잠시 몸을 쉬고 있는 물결의 시선과 그를 지켜보고있는 350만 부산인들의 시선은 낙동강이 준 이 나라에 대한 뜨겁고도 고마운 역사적, 문화적 징소리를 공감할수 있으며 먼길 물결을 흘러 보낼수 있었던 낙동강의 큰 그릇 됴됨이를 뒤돌아보며, 아쉬운 석별의터전 “을숙도”를 살펴보며, 석별을 위한 울음소리 - 징소리를 가져가는 것일까?

을숙도의 저녁 하늘가엔 어김없이 강새소리, 사공들의 노래소리, 몇무리의 이야기소리가 젓어들고 붉은 일몰의 바다속으로 사라진다. 그 사라짐을 보는 우리 부산인의 가슴속엔 사랑을 위한, 양심을 위한 보이지 않는 언약이 이루어지며 때론 한편의 詩로, 때론 한편의 노래로써 징소리되어 이 하늘가를 떠다니는 것이다.

1986년초의 을숙도 하늘가! 지금 그 하늘가에도 징소리는 울리고 있는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땅 곁에 눈을 두고 귀를 열어 찾으려하면 들리지 않는것은, 내일을 향한 장간의 휴식때문이라 위안해야 되는 것일까?

을숙도의 파수꾼들이 사라지고 없는 내일이다 싶기에 안스러운 동정속에서 “울리고 있는것 처럼 느껴지는” 위안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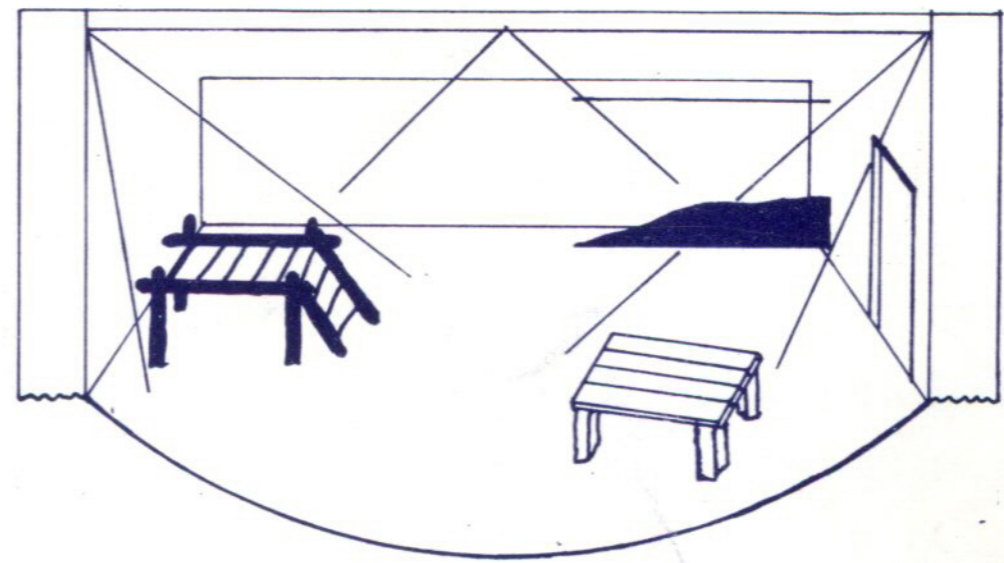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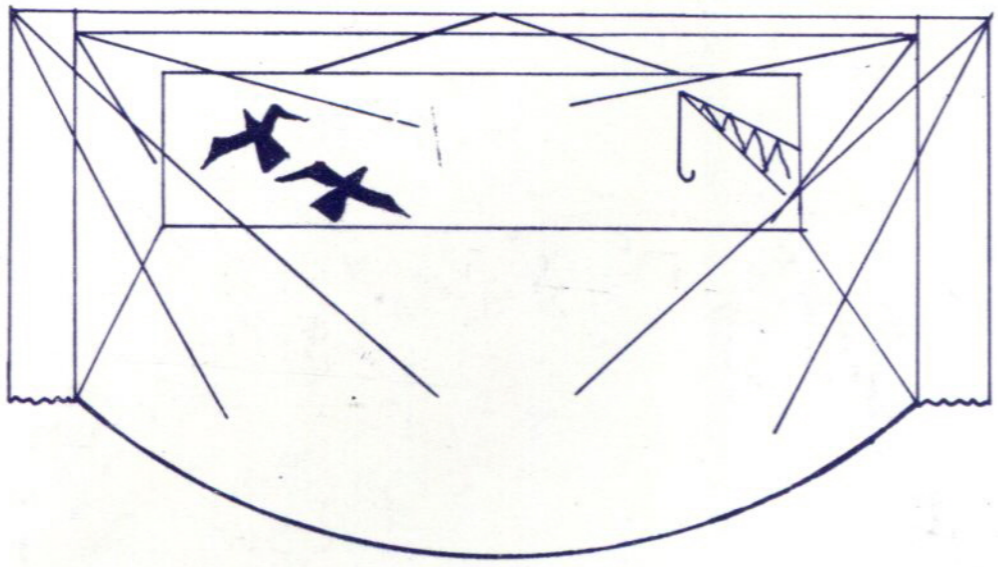
이 을숙도의 징소리가 극단 “예술극장”의 18회 정기공연에 의해 조명되고 있음을 진정 기쁘게 생각한다. 을숙도는 진정 부산의 것이며 그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사람들은 바로 부산인들이기 때문에 이번 공연은 그 가치가 높다 할것이다. 1300리 길고긴 물길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 민족혼과 살신구국을 마다하지 않은 역사의 징소리를 재창조하여 간직하여야만 되고, 손길손길 속에 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할 우리모두에게 이번 “을숙도” 공연이 연극 예술로서의 가치있는 징소리를 울려주어야 되겠다는 맘은 낙동강을 사랑하기위해 노력하는 한 사람의 바램이라고 하고 싶다.



김 상 화 (金相和)

- 창조그룹 “낙동강” 대표
- 한국산업팀, 워 훈련연구소장

## ◆ 작품 해설 ◆



을숙도에서 평생을 살아온 “권달수”노인과 갈대모양 억세고 강인하게 살아온 그곳 사람들……

그의친구 “안덕만”과는 6.25동란때 낙동강 전투에 함께 참전하여 안노인은 한쪽 다리를 잃었고 권노인은 큰아들을 잃었다.

그후 두노인은 진주에서 이주해온 “진주댁”과 철새와 갈대, 그리고 이나라를 지켜온 낙동강과 함께 평화로운 을숙도의 자연을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날 을숙도 하구에 독공사가 시작되고 마을전체가 이주하게 되면서 이 연극은 시작된다.

홍수와 가뭄을 미리 예방하고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보호하고, 더많은 곡식을 생산키위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등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해 하구연공사는 진행되고 마을 사람들은 하나 둘 을숙도를 떠나지만 권달수노인은 끝내 낙동강과 을숙도를 떠날수 없다고 강경하게 말한다.

권노인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연속에서 살고 싶었으며 물난리 때 죽은 아내와 그곳에 묻혀있는 아들을 버리고 떠날수가 없다고 우기며 끝까지 버틴다.

한편, 처가의 도움으로 사업을 하다 파산직전에 몰린 아들 봉섭이 내외는 이소식을 전해듣고 아버지의 보상금을 가로채려고 나타난다.

이런 와중에 딸 옥이는 친구의 꾀에 빠져 집을 뛰쳐나가 술집에서 일하게 되고, 금전에 눈이 어두워진 아들 내외는 권노인을 속인채 보상금을 가로채 떠나려 한다.

이사실을 알게된 권노인은 극한 실의 속에 고민하다가 아내의 뒤를 따라 강물에 뛰어들고 만다.

얼마후 소식을 듣고 나타난 딸 옥이는 그제서야 아버지의 참뜻을 깨닫고 강둑에 올라 슬피 아버지를 부르며 한많은 돈보따리를 강물에 내던진다.

# CAST



권달수 이 영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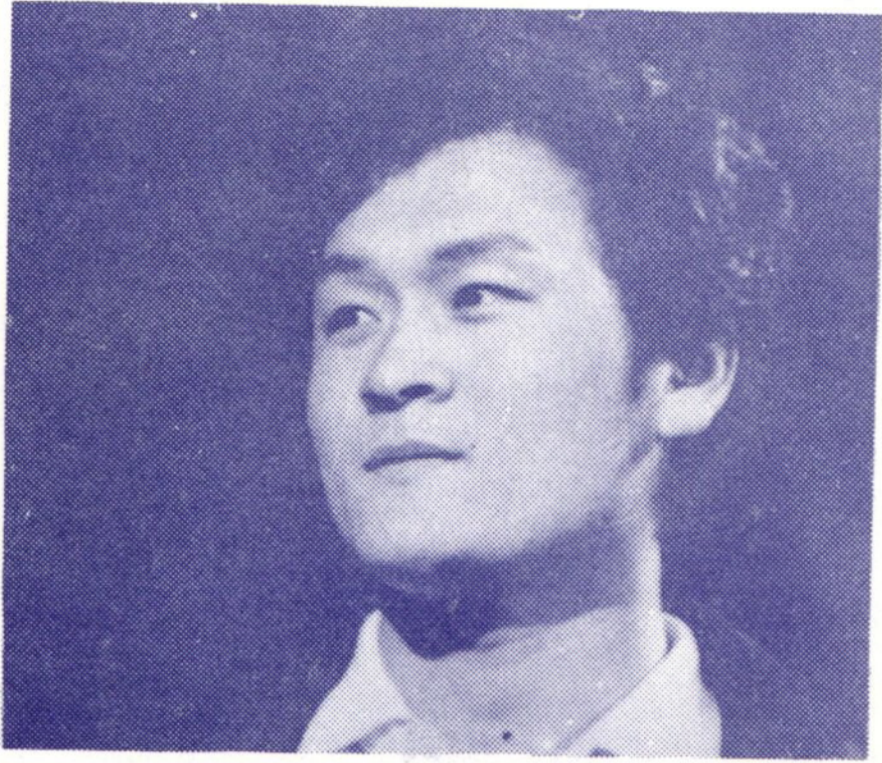


안덕만 유 순



소장 정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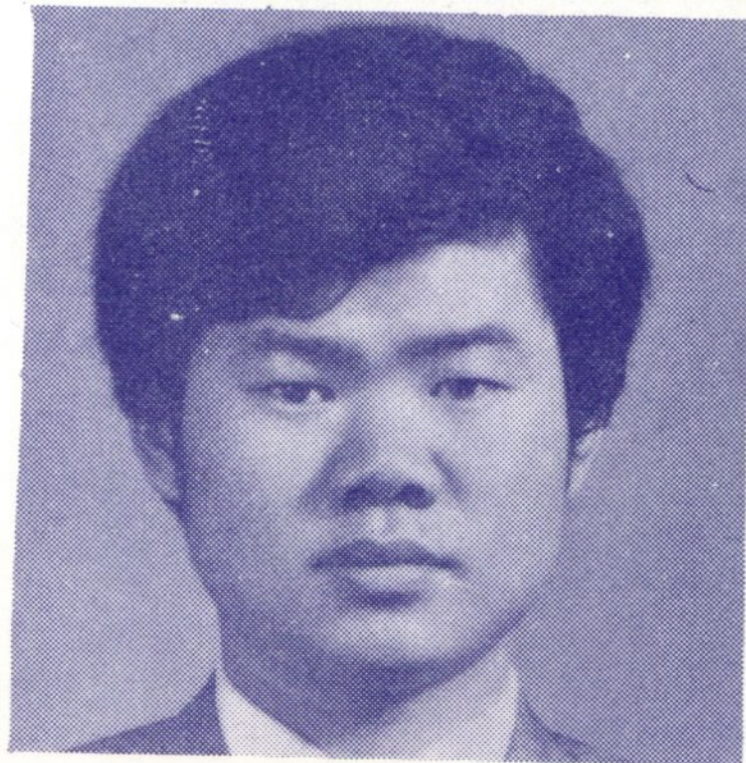
CAST



이장 고인범



아들 민선기



남자 손대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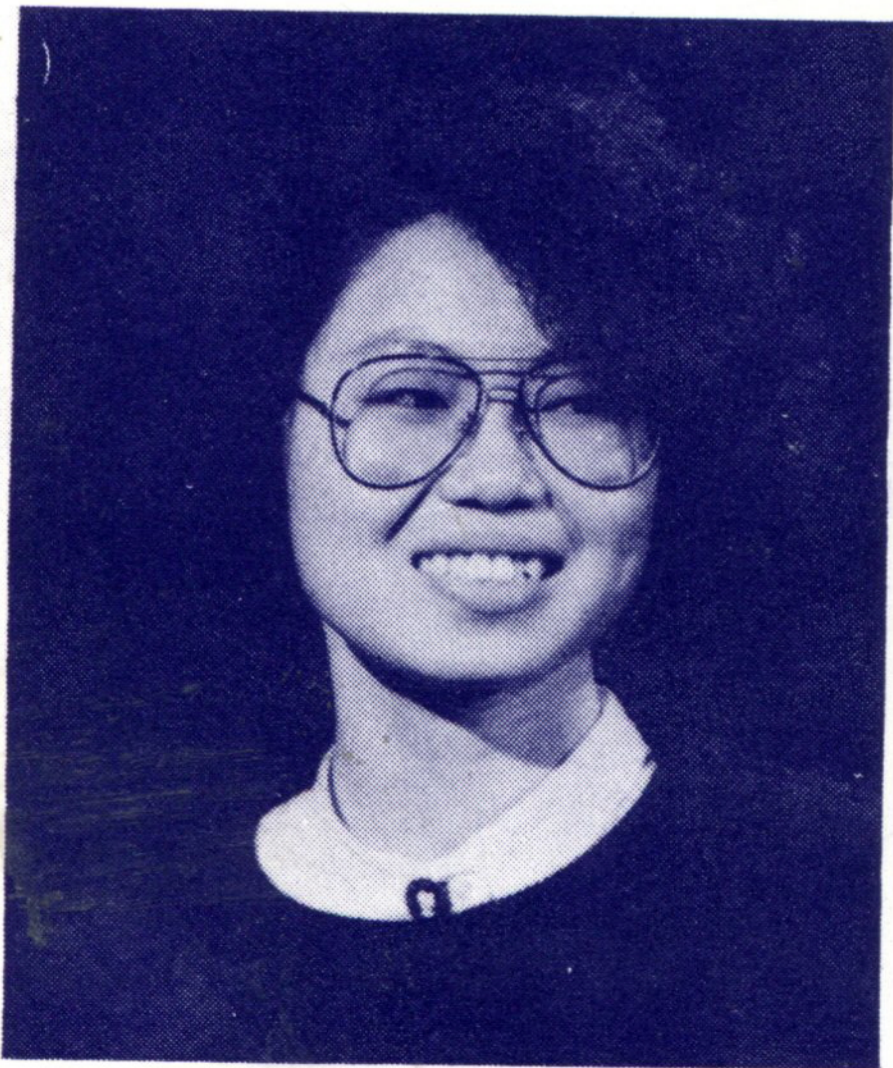
CAST



며느리 전 영 례



옥이 이 현 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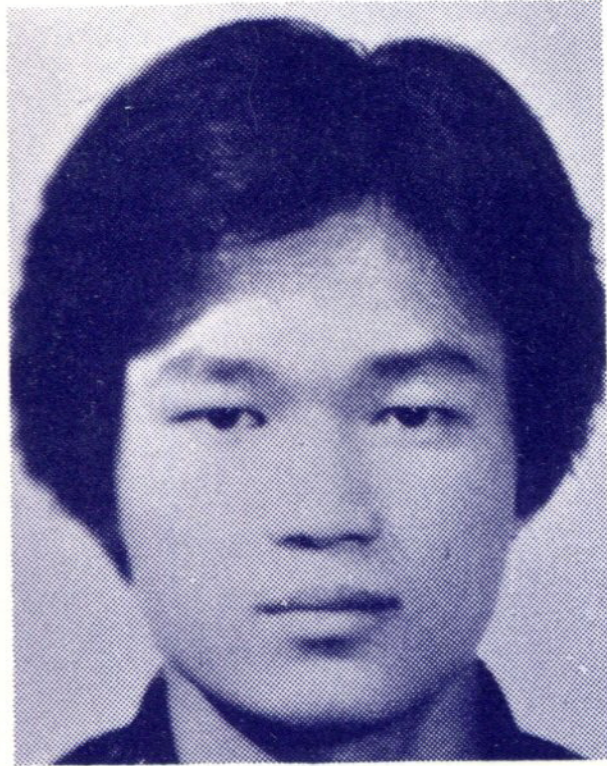
진주댁 전 승 순



경아 하 미 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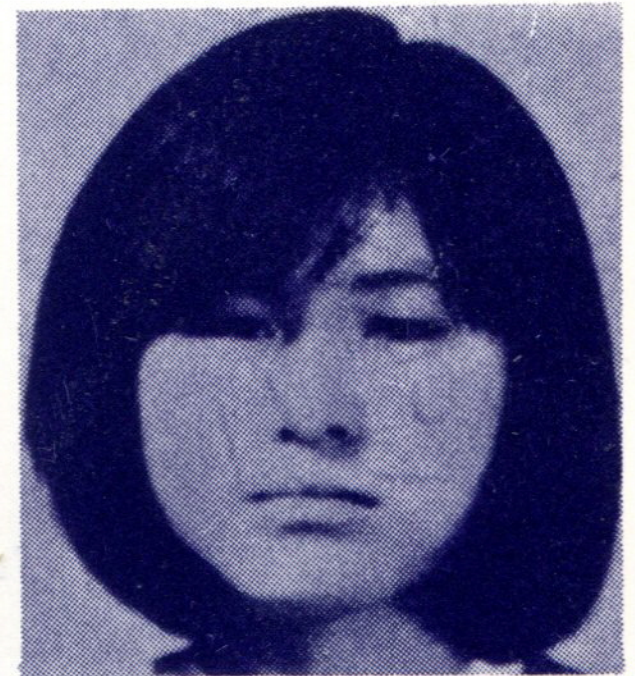
# STAFF



기획 정 기 영



무대감독 김 훈 지



무대미술 조 현 신



효과 권 순 우



의상 이 정 옥

조명 김 인 환

## 한양 STUDIO

부산시 중구 광복동 2가 24번지  
☎ 22-4885

### VIDEO

-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
- 기업PR 및 브리핑용, 社内報
- ITEM에 의한 기술 및 생산 TQC
- 건설현장의 착공부터 완공까지 기록
- 시청각교육 및 행사기록 보존
- 貴社(宅) 비디오 TAPE의 편집

### AUDIO

- 효과음 및 B.G.M 제작
- 8m/m, 16m/m Dubing
- 각종 시나리오 및 슬라이드 녹음제작

### SLIDE

- 시나리오작성 및 현장 현품촬영
- 도안·자막제작·자체 현상실 완비